

# 西京別曲 語釋

權 在 善

## I.

現傳 高麗時代의 俗謠 中에서 西京別曲은 그 歌詞의 解讀이 쉬운 俗謠 中の 하나이다. 그러나, 그 歌詞의 끝부분에 있어서는 語句 分析이나 解讀에 異見이 대립되고, 現在의 解釋으로는 釋然치 못한 점도 있다.

정확한 解讀을 위해서는 客觀的인 妥當性이 주어져야 하는데, 우선 文法的인 妥當性이 確認되어야 하며, 文法 및 文脈으로 妥當性을 確認할 수 없을 때는 다른 面에서 그 妥當性이 確認되어야 하겠다.

이를 위하여 本稿에서는 歌詞의 構成과 表現語調에 依하여 그 妥當性을 確認하고자 한다.

現傳 歌詞의 構成을 分析하기 위해서는 歌詞 構成의 變化 如否를 檢討하는 것이 좋겠고, 이를 檢討하기 위해서는 高麗俗謠에 쓰인 別曲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겠다. 「別曲」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몇 가지 見解가 있지만 筆者는 「原曲」에 대한 「別曲」이라는 李秉岐님의 見解에 同調한다.<sup>1)</sup> 「別詞」란 「原詞」에 대해서 「別詞」란 말이고, 「別曲」이란 「原曲」에 對한 「別曲」을 말한다고 본다.<sup>2)</sup> 그러던 것이 뒷날에 와서 別曲은 「새로운 曲調」로서 新鮮

1) 別曲의 뜻에 대해서는 다음 같은 見解들이 있다.

高麗서 外國의 曲과는 別途로 지은 歌曲이라는 뜻.

金思燁·鄭松江研究, pp.182-183.

分草된 노래의 뜻.

高品玉：國語國文學要講, p.380.

別曲은 元來 있었던 어떤 曲과는 달라 따로 만들어진 曲의 別稱.

李秉岐·白鐵：國文學史, pp.101-103.

2) 曲調는 쉽게 고쳐지는 것이 아니고, 歌詞의 別製가 있을 수 있겠다는 見解가 일찍부터 보인다.

傳曰 宗廟樂 如保太平大業則善矣 其餘俗樂 如西京別曲 男女相悅之詞 甚不可也 樂譜則不可卒改 依曲調別製詞何如。(成宗實錄 215, 19年 4月).

그러나 詞는 一定하되 曲이 바뀌는 것을 時調에서 볼 수 있다. 時調는 그 曲이 短歌曲에서 時調曲으로 바뀐 것은 周知의 사실이다.

2 嶺南語文學 (第7輯)

味를 가진 流行曲調의 意味로 쓰이어 別曲이란 曲名이 形成된 것 같다. 翰林別曲, 關東別曲 따위가 그런 것이다.

現傳 西京別曲은 「西京」을 무대로 한 前半部와 「大同江」을 무대로 한 後半部로 構成되고 內容은 李朝人이 「思女相悅之詞」라고 이를 만든 것이다. 그런데, 記錄에 傳하는 歌名으로는 「西京」과 「大同江」이 따로 있고 樂章歌詞에 실린 것과는 그 內容이 다르다.

(A) 西京 古朝鮮 卽箕子所封之地 其民習於禮讓 知尊君親上之義 作此歌 言仁恩充暢 以及草木 雖折敗之柳 亦有生意也.

(高麗史 卷七十一 樂志)

大同江 周武王 封殷太師箕子于朝鮮 施八條之教 以興禮俗 朝野無事 人民權悅 以大同江比黃河 永明嶺比崇山 此入高麗以後所作也.

(高麗史 卷七十一 樂志)

(B) 高麗俗樂 考諸樂譜載之 其動動及西京以下二十四篇皆同俚語.

(高麗史 卷七十一 樂志)

宗廟之樂 如保太平定大業則善矣 其餘俗樂 如西京別曲 男女相悅之詞 甚不可也.

(成宗實錄 卷二十五·十九年四月)

위 例文의 (B)의 西京은 (A)의 西京과는 다른 現傳하는 西京別曲을 말하는 것으로 본다. (B)의 高麗史 樂志의 西京은 高麗俗謠로 傳하는 「動動」과 同類로 記述되었고, 俚語로 되었다는 점에서 現傳 「西京別曲」으로 理解된다. 이 두 가지의 關係는 다음과 같다.

	記錄上의 名稱	編 裁	場 姓	內 容
A	西 京	獨 立 歌 詞	西 京	稱詠箕子遺風
	大 同 江	獨 立 歌 詞	大 同 江	稱詠箕子遺風
B	西 京 別 曲	西京別曲前半部	西 京	男女相悅之詞
	西 京 別 曲	西京別曲後半部	大 同 江	男女相悅之詞

이들의 (A)와 (B)는 우선 歌詞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高麗史樂志에서 西京, 大同江, 西京別曲 따위 歌曲名으로 分別 없이 쓰인 점으로 보아 서로 어떤 關係가 있고, 같은 曲의 노래라고 본다면 어느 한 편은 原詞이고 어느

한 편은 別詞라고 보겠다. 어느 것이 原詞인지 具體的인 記錄이 없어 分別키 어려우나 高麗史樂志에 「西京」이 俗樂에 들어 있고, 또 後代에 俗樂으로 傳承된 점으로 보아 男女相悅之詞인 (B)가 原詞라고 보겠다.

그리고, 「別曲」이란 名稱이 붙자면 이들 歌詞가 「原曲」을 버리고 다른 曲調를 取해야 한다. 그런데, 한 가지 考慮할 점은 어떤 歌詞가 原來의 자기 曲調를 버리고 다른 曲調를 取할 때 다른 曲調는 다른 歌詞의 曲調이므로 歌詞의 量이 맞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別曲을 取한 歌詞는 자연히 그 別曲에 맞는 量의 歌詞로 改變되지 않으면 안된다.<sup>3)</sup> 따라서, 別曲을 取한 歌詞는 歌詞 自體의 檢討에서 그러한 점을 確證할 수 있을 것이다.

## II.

現傳 西京別曲의 歌詞는 다음처럼 14分節로 되어 있다.

西京이 아즐가  
 西京이 서울히 마르느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닷곤디 아즐가  
 닷곤디 쇼성경 고외마른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여히므론 아즐가  
 여히므론 질삼비 브리시고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괴시란디 아즐가  
 괴시란디 우라곰 좃니노이다.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구스리 아즐가  
 구스리 바희에 디신돌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3) 時調를 短歌曲을 버리고 時調曲으로 부를 때 詞의 量이 時調曲에 맞지 않아 終章 末句를 빼어 버리는 것은 端的인 例가 된다.

4 嶺南語文學 (第7輯)

긴히쑤 아즐가  
긴히단 그츠리잇가 나눈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더리

즈믄히를 아즐가  
즈믄히를 외오곰 녀신뎨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더리

信잇돈 아즐가  
信잇돈 그츠리잇가 나눈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더리

大同江 아즐가  
大同江 닛븐디 몰라셔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더리

빅내어 아즐가  
빅내어 노홀다 샹공아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더리

디가시 아즐가  
디가시 톨난디 몰라셔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더리

넬히예 아즐가  
넬히예 언즌다 샹공아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더리

大同江 아즐가  
大同江 건넌편 고졸여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더리

빅타들면 아즐가  
빅타들면 것고리이다.  
위 두어렁성 두어렁성 다렁더리

各節은 다음 같은 形式으로 되어 있다.

3(4)                    3  
3(4)                    3(4.5)                    3(4.5.2)

1 4 4 4

한 音步의 基本音節數는 「위 두어덜성 두어덜성 다링디리」로 固定된 終章을 除外하고는 三音節로 되어 있으며 경우에 따라 四音節, 五音節, 二音節로 드러나고 있다. 共通된 形式은 三章九句로 終章의 四句는 固定된 形式이다.

여기서 注目되는 것은 이와 같은 形式에 맞추기 위해 語彙를 反復하거나 「아를가, 나눈」 등의 無意味한 語句를 挿入하고 있는 점이다. 이것은 어떤 固定된 曲에 歌詞를 맞추어 나갔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歌詞의 意味上的 脈絡을 따져 보면 文脈上에 必要 없는 餘音이 아무 規則 없이 挿入되어 있음을 보는데, 이 餘音을 빼고 文意上으로 必要 없는 重複表現을 빼면 다음처럼 된다.

(A) 西京이 서울히 마르는

맛근 덕 쇼성경 고외마른  
여히므론 질삼씨 브리시고  
괴시란디 우리곰 좃니노이다.

(B) 구스리 바회에 디신들

긴헛둔 그츠릿가  
즈른 히를 외오곰 녀신들  
信엇둔 그츠릿가

(C) 大同江 너븐다 몰라서

빅내여 노훈다 샤공아  
네가시 림난디 몰라서  
넬 빅에 연즌다 샤공아  
大同江 건넌편 고줄 여  
빅타 들면 것고리이다.

그런데, (A), (B), (C)는 內容上으로 異質的일 뿐 아니라 形式上으로는 章數 및 句數가 서로 같지 않는 異質性을 드러낸다.

특히 (B)는 더욱 심하다. 이 (B)는 西京別曲에 固有한 것이 아니고 다른 俗謠에도 보인다.

구스리 바회에 디신들

구스리 마회에 디신들  
 긴헛든 그즈릿가  
 즘은 헛를 외오곰 녀신들  
 즘은 헛를 외오곰 녀신들  
 信엇든 그즈리잇가.

(鄭石歌)

二 뿐 아니라 李齊賢의 小樂府에도 解詩가 收錄되어 있다.

縱然岩石落珠璣  
 纓縷固應無斷時  
 與郎千載相離別  
 一點丹心何改移

(益齋亂藁第四·小樂府)

이 (B)의 歌詞는 高麗代 愛唱된 獨立歌詞로 보아진다.

그리고, (A)와 (C)의 歌詞를 比較해 보면 同一한 戀歌라 할지라도 異質의인 性格을 드러내고 있다. 서로 틀리는 점은 (A)는 四章으로 되어 있고 (C)는 六章으로 되었으며, 背景은 (A)는 西京이고 (C)는 大同江이며 語調는 (A)는 誓約의이고 (C)는 威脅의이다.

(A)	(條件)	(誓約)
	여히므론	길삼의 버리시고
	괴시란디	우러곰 좃너노이다

(C)	(說明)	(威脅)
	大同江 너븐디 몰라서	빅내여 노홀다 사공아

이상의 諸點을 圖示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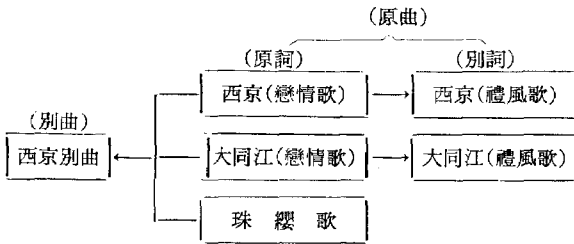
	章數	背景	語調	可能的題目
A	四章	西京	誓約	西京
C	六章	大同江	威脅	大同江

비록 別離라는, 같은 主題이고 話者가 같은 女子라 하더라도 後代에 男女

相悅之詞로 일컬어진 俗謠에 「別離」나 「相思」의 同一한 主題는 얼마든지 있겠으므로 위에서 列擧한 서로 다른 點을 보아 原來 別個의 歌詞로 보아진다.

그렇다면, 麗代에 男女相悅之詞로서의 「西京」과 「大同江」이 別個 歌詞로 각각 成立된 것으로 보겠다. 그런데, 이들이 한 歌詞로 合쳐지고 單 歌詞까지 插入된 理由는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曲調를 取한 데 理由가 있는 것 같다. 現傳 歌詞가 「西京別曲」이라 하여 「別曲」이란 名稱이 붙은 것은 이를 證據하는 것으로 原來의 曲調를 버리고 다른 曲調로 부르자니 그 曲調에 맞는 歌詞로 改編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必要없는 餘音까지 꺼어 넣어 現傳 歌詞처럼 再構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西京」과 「大同江」 歌詞의 變化는 다음 같은 것으로 推定된다.



### Ⅲ.

現傳 「西京別曲」의 歌詞를 그 內容으로 보아 앞에서 區分한 것처럼 (A), (B), (C)로 區分하면, (A)와 (B)의 部分은 解讀上에 별 問題가 없다. 게다가 앞에서 論及한 것처럼 원래 別個의 歌詞일 것으로 推測되므로 (C)의 解讀을 위해서 그 關聯을 考慮할 必要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C)의 部分은 그 解讀을 위해서 (C) 部分 自體의 分析과 檢討로서 足하겠다.

(C)部分의 語調를 밝히기 위하여 解讀에 구애가 없는 第一, 二節을 먼저 살펴 보기로 한다.

大同江 너븐디 몰라서 (說明)

빈 내여 노홀다 샤공아 (威脅)

大同江이 넓다는 것은 事實의 說明으로 威脅의 根據이다. 적은 배로 넓은大同江을 건너는 것은 危險한 것으로 江의 가운데서 배가 뒤집힐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배를 물에 띄우느냐? 배를 띄우지 말아라는 은근한 威脅을 하고 있다.

먼저 注目할 점은 一·二節과 三·四節은 嚴格한 對偶法으로 되어 있는 점이다.

- (一) 大同江 너븐디 몰라서 빈내여 노훈다 사공아  
 (二) 네가시 립난디 몰라서 널빅에 연즌다 사공아

또 統辭面에서 볼 때 (一)와 (二)는 同一한 文章型을 이룬다.

—아(1)	—디(2)	—라서(3)	—물/에(4)	—다(5)	—아(6)	
大同江(이)	너븐디	몰라서	빅(물)	내여	노훈다	사공아
네가시	립난디	몰라서	널 빅에		연즌다	사공아

(1)은 일단 도피치 하던 (4)의 助詞가 目的格과 處格으로 서로 다른 語尾는 전혀 同一하다. (4)가 비록 助詞의 差異는 나지만 目的格이나 處格이 叙述語를 補完하는 同一한 機能으로 보아 이들을 동치 客語라고 보면 모든 文構成이 一致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構成의 一致로 보아 (二)의 「네가시」는 主格으로 解釋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對偶法으로 되었다든지 文構成이 同一한 점으로 봐서 (一)와 (二)의 語調가 一致할 것이 틀림없다. 그런데, (二)의 「립난디」를 歌者의 行爲 또는 心情으로 보면 (一)과 (二)의 語調가 틀린다. 歌者의 心情으로 본 解釋으로는 「식립난디」(걱정이 난지), 「립난디」(음욕이 난지), 「넘난디」(걱정이 난지)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어느 것도 (一)와 같은 語調를 이룰 수 없다<sup>4)</sup>

4) 「립난디」의 解釋에 對한 異見은 다음 같은 것이 있다.

시림 : 「시름」(憂)의 俗綴, 梁柱東, 麗謠箋注, p. 299.

립난디 : 넘(越)는 곳, 池憲英, 鄕歌麗謠新釋, p. 105.

립난 : 넘는(狼淫, 情慾, 性慾), 金圭泰, 高麗歌謠, p. 99.

립난디 : 念난디, 金亨奎, 古歌註釋, p. 176.

립난디 : 狼濫한 줄, 넘난(過濫한), 徐在克, 「西京別曲의 “네가시립난디”再考」, 語文學 27, p. 119.

「네가시」로 分析하는 경우 「가시」는 「가시」(妻)로 解釋하고 있으나 다른 異見도 있다. 네(人稱代名詞) + 갓(接尾辭) + 이(主格助詞) 徐在克, 上揭書同頁.



「시름난디」로 解釋하여 語調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네가 내 걱정 생겼음을 몰라서 가는 배에 없느냐 사공아, 비정하다. 부디 그러지 마라. (哀願)

이처럼 語調가 「哀願」으로 되어 一・二節의 語調인 「威脅」과 어긋나게 된다. 이것은 그러한 解釋이 不當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筆者는 다음처럼 語釋코자 한다.

가시 : 갓(物) = 이(主格助詞)

풍룻 가스로 莊嚴했거든 (月釋 8 : 8)

갓 물(物) (字會下 2)

립나다 : 넘나다(過出 = 超過)

넘나가(潛越) (同文下 57)

過는 너를 씨라(釋譜序 3)

싸해 나리 호쇼서(月釋 8 : 59)

「넘나다」(過出)의 바른 綴字는 「립나다」가 아니다. 그러나, 音節頭音「ㄴ」이 「ㄹ」로 誤綴된 것은 樂章歌詞에서도 편다.

하늘 → 하툼

하툼해 못 밋거니와 님의 늠복산 恩과 德과는 하늘 마티 노복샨다. (感恩君)

바늘 → 바툼

바툼도 실도 업시 바툼도 실도 업시 處容 아비를 누고 지어 세니오. (處容歌)

거늘 → 거를

落帆江口에 月黃昏커를 小店에 無燈欲閉門이로다. (漁父歌)

樂章 外도 많은 例를 찾을 수 있다.

넘다 → 립다(過)

러물 과(過)(類合下 43)

나다 → 라다(出)

그 킬름 머거 빅 불러닐 라다 못홀가 시브거늘(太平 1 : 11)

시병 열 라 미친 디 고티느니(辟新 9)

낙시 → 락시(鈞)

10 嶺南語文學 (第7輯)

- 락시 구(鉤)(類合上 15)
- 날돌 → 말돌(日月)
- 랄뜨리 줄더니(類甲子)(杜重 10 : 3)

이렇게 語釋하면 다음처럼 全體 統辭構造나 앞 節의 語調에 맞는 解釋이 된다:

네 것이 넘난디 몰라서 널 비에 연즌다 사공아.  
 (네 것이 넘어나는지 몰라서 가는 배에 없느냐 사공아, 위험한 것이다. 그러지 마라. (위협))

그리고, 留意할 점은 「연즌다」의 目的語는 物件이다. 사람이라면 「태운다」로 될 것이다. 따라서 없는 것이 「님」과 관계가 된다면 님의 집일 것이다.

(C)部分의 五·六節에 대한 從來의 解釋은 釋然치 않는 점이 있다. 먼저 文法面에서 봐서 五節의 「고즐여」와 六節의 「것고리이다」의 從來의 解釋이 不當함을 느낀다.

「고즐여」는 「꽃(花)+을(目的格助詞)+여(感嘆助詞)」로 解釋하고 있지만 目的格助詞 다음에 感嘆助詞 「여」가 添加된 例는 없다. 「-어」(感嘆助詞)의 用例는 모두 名詞에 直結되어 쓰일 뿐이다.

- 快다 이 두루미어(楞嚴 8 : 67)
- 크실서 君王스德이어(內訓 ~ 30)
- 도홀서 도홀서 으값앗 果報 1여(月釋 23 : 82)

「것고리이다」는 「겪(折)+오(意圖法語尾)+리(未來語尾+이다(相對尊稱終結語尾))」로 分析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解釋하면 意圖法語尾 「오」가 문제가 된다.

전년편 그즐여 (너미) 비타 들면 것고리이다.

배를 타고 들어가는 사람은 歌者인 「내」가 아니고 「님」으로 解釋된다. 그러므로, 꽃을 꺾는 行爲는 나의 行爲가 아니고 님의 行爲이다. 따라서 「님」이 行할 行爲는 決心, 命命, 強要의 意圖가 아니고 일어날지도 모르는 추측

에 불과하다.

다음의 예에서 처럼 「—이다」語尾의 경우 단순한 推定事實을 말하는 경우는 意圖法語尾 「오」는 들어가지 않는다. (A)와 (B)를 對比해 보면 無意圖的인 경우와 意圖的인 경우가 意圖法語尾 「오」의 有無로 區分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A) 太子 | 出家하시면 子孫이 그즈리이다. (月印上 136)  
 시르 드토아 싸호면 나라히 낙디그에 가리이다. (釋譜 2 : 6)  
 天衆 드리고 다 그 고대 가 供養하며 더리리이다. (釋譜 9 : 21)  
 그 사르디 福 어두미 無量無邊 하리이다. (月釋 21 : 131)  
 聖子 | 나사 正覺 일우시리이다 (月釋 2 : 17—8)
- (B) 부터웃 許하시면 묻즈보리이다. (月釋 10 : 67)  
 내 어루 이르스보리이다. (載譜 6 : 22)  
 즈르면 어루 法을 비호스보리이다. (釋譜 6 : 11)  
 부 | 마를 들즈보면 어루 恭敬하야 信하스보리이다. (釋譜 13 : 45)

둘째로, 從來의 解釋으로는 釋然치 않는 점은 語調가 그 앞의 一・二・三・四節과는 어긋나는 점이다. 從來의 解釋대로 하면 다음과 같다.

이 배를 타고 들어가면 건너편에 있는 꽃을 꺾을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哀傷)

한 作品의 語調는 그 作品의 文體에서 全篇을 通하여 同一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앞 部分이 威脅의 語調로 되었다면 이 部分도 威脅의 語調로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그 앞 部分과 다른 「哀傷」의 語調는 解釋이 잘못된 것을 드러낸다고 보겠다.

筆者는 다음처럼 解釋하고자 한다.

고졸여 : 꽃(花) + 을(目的格助詞) + 여(伺) + 어(連結語尾)  
 管見은 닷 굴마로 여서 볼 씨니(金삼 2 : 65)  
 여술 스(伺)(類合下 34)

「여서」(伺)는 「△」꼴이 없어진 뒤에도 「나사」(進)가 「나아」로 되듯이 「여어」로 되지 「여」로 되지 않는다.

無心할 저 고기를 여어 무슴하려는다. (靑丘永言)

## 12 嶺南語文學 (第7輯)

또 창 굼그로 여어 불가 저페라(朴解中 18)

시름하야서 노피 새 디나가몰 여어 보느니(重杜解 10:36)

그러나, 音樂의 歌詞로서 노래 불러 질 때는 곡조에 따라 「여어」는 長母音 「여:」로 불러 질 수 있다. 한글에 長母音에 대한 특별한 記號가 따로 마련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長母音이나 短母音의 表記을 區分하지 않고 表記하므로 이 「여:」를 「여」의 表記라고 假定하면 「여어」가 노래 불러 질 때 「여:」로 소리나는 것이 口傳하는 동안 語源意識을 喪失하고 소리나는 대로 表記하여 「여」로 訛傳된 것으로 보겠다.

것고리이다: 것골(倒)+이(被動補助語幹)+이다(相對尊稱終結語尾)

「것고리이다」(倒)의 語形은 現存資料에서 찾을 수 없다. 그러나, 近世語資料에서 그 語幹이 確認되므로 그 以前에 그런 語形이 存在한 것이 分明하다.

것골- / 것골- (倒)

(A) 것고로(것골+오)

빅성이 것고로 돌닌듯하느니(敬民音 1)

(B) 것구러디다(것골+어+디+다)

프레 것구러디다(百聯 5)

것구러디다(倒了) (同文上 26)

것구러티다(것골+이+티+다)

엇디하여 것구러티리오(怎生得倒)(老解上 32)

윗 例의 (A)는 語幹에 副詞派生接辭 「오」가 添加되어 副詞化한 例이다. 그런 例는 흔하다.

잡다(頻) → 잡오 / 잡우(자주)

맞다(會) → 맞오 / 맞우(마주)

고르다(均) → 곱오 / 곱우(고루)

바르다(正) → 발오 / 발우(바루)

(B)는 두 單語가 습친 複合語의 例이다.

것골(倒)+아(副詞形語尾)+디(落)+다

것굴(倒)+이(使役補助語幹)+티(打)+다

그런데, 「-디다」와 「-티다」는 원래의 뜻으로 쓰인 것이 아니고 受動과 強勢의 補助語幹으로 쓰이었는데 뒤에 派生接辭化하였다.

넘다(過)→넘어지다

퍼다(開)→퍼지다

벌다(羅)→벌어지다

쓸다(掃)→쓸어지다

밀다(推)→밀치다

넘다(越)→넘치다

벨다(伸)→뻗치다

감다(捲)→감치다

※ 뒷날에 「디」는 「지」로 「티」는 「치」로 口蓋音化되었다.

「것구라디다」나 「것구리티다」도 이런 類로 보이므로 「것굴다」(倒)의 낱말이 存在했을 것이 確信된다.

그렇다면, 「것굴다」에 被動補助語幹이 붙은 「것굴이다」(被倒)는 自然스럽게 成立하는 語形이다.

것굴다(倒)

것굴이다(것굴(倒)+이(被動補助語幹))

「것고리이다」는 被動補助語幹 「이」에 相對尊稱語尾 「이다」가 連結한 것인데 補助語幹 다음에 「이다」가 連結됨은 다음 같은 使役補助語幹 「이」 다음에 「이다」가 連結된 例가 이를 證據한다.

아자비 쇼를 소아 주기이다(內訓 3:49)

「것고리이다」는 現在時制인데 現在時制는 時間을 超越하는 眞實을 나타낸다. 여기서는 確信을 強調한 것이라 하겠다. 現在時制로써 確信을 強調한 例는 「아리랑」에서 그 例를 볼 수 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입은

十里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

이러한 解釋은 全篇의 語調에도 一致한다.

大同江 건너편 꽃을 여(어)

빅 타 들면 것골이이다.

(大同江 건너편 꽃을 엿보고 배를 타고 강에 들어가면 틀림없이 배가 뒤집힐 것입니다. 위험합니다. 가지 마세요—위협)

#### IV.

앞에서 행한 筆者의 解釋은 다음과 같다.

(原文 바로잡음)

(解 釋)

(I) 大同江 너븐디 몰라서  
빅 내어 노홍다 사공아

大同江 넓은지 몰라서  
배를 내어 놓는가? 사공아

(II) 네 가지 넘난다 몰라서  
넬 빅에 연즌다 사공아

네 것(짐)이 過重한지 몰라서  
가는 배에(임의 짐을) 없느냐? 사공아

(III) 大同江 건너 편 고줄 여어  
빅타 들면 것고 리히다

大同江 건너편 꽃을 엿보고  
배를 타고 들어 가면 뒤집힙니다.

전체의 語調는 은근한 威脅이며 (I), (II)는 危險의 原因을 提示하고 있지만 (III)은 咀呪의 感情으로 은근히 威脅하고 있다.

(I) 넓은 大同江: 작은 배 ~ 위험.

(II) 과중한 荷物(네 것): 임의 짐 철가 ~ 위험.

(III) 틀림없이 뒤집힌다(咀呪) ~ 위험.

(III)과 같이 애뜻한 感情이 咀呪로 變하고 그 咀呪로 위험하면서 간곡한 嘆息하는 것은 民謠로 傳承되고 있는 우리 俗謠의 獨特한 語調이다. 「아리랑」의 歌詞에서 類例를 찾을 수 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임은

十里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

(아 리 랑)

歌詞의 構成은 배를 물에 띄우고 거기에 짐을 싣고 임이 타는 過程을 順

次로 叙述하고 있으며, 口이 떠나지 못하도록 (I)과 (II)는 事公에서 威脅하고 (III)은 口에게 威脅하고 있다.

그 過程과 威脅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

	시 기	대 상	위 험 내 용
(I)	배를 돌에 띄울 때	사 공	적은 배로서는 넓은 大同江 渡江은 위험함.
(II)	口의 疋을 실을 때	사 공	이미 실은 荷物이  과하니 口의 疋을 실음은 위험함.
(III)	口이  탈 때	口	꼭 배가 뒤집힌다. (咀呪)